

금융 & 경제

한국은행

주요업무

1. 화폐(유통되는 시장의 모든 돈)발행
2. 목표
 - **물가안정** : 돈(자국화폐)의 가치를 지킴
 -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여 **금융 안정** 도모
3. 외화자산 보유, 운용
4. 국고금 수납, 지급
5. 금융기관 상대로 예금, 대출

관련 용어

| 통화(유통화폐)

- 본원통화
 - 유통화폐 :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쓰는 돈,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폐
 - 돈 : 일반적인 유통수단

| 금융

- 돈의 흐름(돈이 흘러가는 모든 활동)
- 자금의 수요 공급에 관계되는 활동

| 가격

- 경제, 비즈니스 면에서 물건, 용역, 자산의 금전적 수적 가치를 따지는 것
-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 단위로 구매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화폐의 양

| 금리&환율

- 물물교환 : 재화와 재화의 교환이다.

- 매매 : 돈과 재화나 용역의 교환이다.
 - 환전 : 돈과 돈의 교환 즉 매매이다.
 - 환율 : 서로 다른 통화의 교환 비율, 외국 돈의 가격
 - 금리 : 돈에대한 이자,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, 화폐 동일
-
- 재화 : 소비자들이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(사용하여 대가를 지불 할 수 있는) 형태를 가진 모든 것
 - 서비스(용역) : 재화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관련한 모든 경제활동

시장가격

- 가격 곡선
 - 수요 증가 --> 가격 상승 --> 공급 증가 --> 가격 하락
 -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접점에서 가격이 결정됨

유동성

- 유동성(liquidity) : 어떤 자산을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얼마나 쉽게 바꿀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도
- 왜 현금을 100% 보유하지 않는가?
 - 화폐는 유동성은 높지만, 물가가 오르면 가치가 하락(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적어짐)하는 단점

금리

종류

1. 기준금리

-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금리

2. 콜금리

- 은행들 끼리 급전을 빌리 때의 금리(은행 간의 금리)
- 당장 값아야 함(오늘 빌렸으면 오늘 값아야 함)

3. 명목금리

- 현재 눈에 보이는 금리(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)

4. 실질금리

- 미래의 물가 상승률 반영 (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리) --> 정확히 알 수 없음
- **실질금리 = 명목금리 - 물가상승률**(약 2~3%)
- 물가상승 = 기준금리 상승 = 이자상승 = 경제활동 위축
 - => 고금리 유지 -> 소비자물가 상승(초과 수요 현상)

5. 환매조건부채권의 금리(RP 금리)

- ‘다시 사들일 것을 약속하고 판매하는 채권’, ‘담보로 잡히는 채권’
- 명목, 실질 금리보단 이자율이 낮음(채권이기 때문)
- 정부가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의 채권 금리
 -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 조절 목적
 - 한국은행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각종 채권을 환매조건부로 판매 -> 그 만큼의 돈이 한국은행 창고로 들어옴 -> 시중에 흘러 다니는 돈의 양 감소
 - RP 7일물 매매: 한국은행이 1주일에 한번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사고 팔아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조절
- RP 투자 :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‘환매조건부 채권’을 우리가 구입하는 것

COFIX

- **대한민국 8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**(예금금리) 지수 -> 얼마나 우량하고 굳건한가에 대한 지수
 - 신한, 우리, SC, 하나, 국민, 씨티, 농협, 기업
- 각 은행들이 **얼마의 금리를 주고 자금을 끌어왔는지에** 대한 자료를 받은 뒤에 이를 **가중평균**해서 계산
 - 자금조달 방법 : 적금, 부금, 금융채, 환매조건부채권, 어음 등

KORIBOR

- 한국 내 은행 간 대차 시장에서의 단기기준금리
 - 우리나라 은행들끼리 단기로 돈을 빌릴 때의 금리
 - 은행의 콜금리 : 8개 은행이 매 영업일에 제시하는 만기별 호가금리
- 리보(LIBOR : London Interbank Offer Rate)금리 : 영국 런던에 소재한 은행들끼리 단기로 돈을 빌릴 때의 금리

금융채

- 은행, 종합금융회사, 여신금융전문회사 등 금융기관의 채권
- COFIX, KORIBOR를 활용하여 채권 금리 결정

CD

- 양도성예금증서(발행인만 있음)
- 은행끼리 자금을 빌려줄 때 발행하는 증서(은행간 이율)
- 제삼자에게 **양도가 가능**한 단기금융상품
- 종류

- 요구불예금증서 : 이자가 붙지 않는 대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다.
- 정기예금증서 : 이자가 붙는 대신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돈을 찾을 수 있다.

고정금리 vs 변동금리

- 일반은행 기준금리 = 조달금리 + 가산금리
- 대출 금리 = 기준금리(시장금리, COFIX) + 가산금리(예대마진) - 우대금리
 - 가산금리(spread) : 은행의 영업 이익을 위해 붙이는 금리
 - 우대금리(prime rate) :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신용도가 가장 좋은 고객에게 적용시키는 최저금리
- 고정금리(금융채금리)
 - 이자를 오늘 날짜로 확정
 - 시장 금리가 상승세일 경우 좋음
- 변동금리(주택담보대출)
 - 월마다 금리가 변함
 - 시장 금리가 하락세일 경우 좋음
 - 주택담보대출 : 무위험이자율금리
- 금리와 채권의 관계
 - **음(반비례)**의 상관관계
 - 금리가 오르면 더 높은 금리의 채권을 사기 위해 기존의 채권의 가격을 낮춰 팔(새로 발행한 채권이 더 매력적)
 -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가 높은 과거 채권을 사려고하기 때문에 과거 채권의 가격 상승

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

- 10년 터울로 발생
-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발생 시 금융위기 발생

1. 통화정책

관련 개념

개념

- **물가를 안정**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 일련의 정책
- 물가안정목표 : 소비자 물가 상승률(전년동기대비) 기준 **2~3%**
 - 소비자 물가(우상향) : 필수품목(생필품)에 대한 물가

통화 관련 정책 회의

- **금융통화위원회**(한국은행 정책결정기구)는 물가동향, 국내외 경제상황,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**연 8회** 기준금리 결정
- 한국은행 총재(현) : 이창용 / (전) : 이주열
- **국가 금리(기준금리, base rate) 발표**

통화정책수단

- **공개시장운영**
- **여·수신제도**
- **지급준비제도**

한국은행 기준금리(base rate)

-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 금리
- 금리와 환율
 - 고금리 -> 투자 증가(이익증가) -> 시장에 달러 증가 -> 자국화폐 가치 하락 -> 환율 하락

통화정책 효과의 파급

- 기준금리 변경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**경제 전반**에 영향을 미침
 - 기본 : 0.25% 상승 / 빅스텝 : 0.5% 상승 / 자이언트스텝: 0.75% 상승 / 울트라 : 1%상승
- **자산가격경로 == 자산가격 변화 금리 상승**
 -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 하락 (이자상승으로 값아야 될 돈 증가) -> 부(wealth)의 감소 -> 가계소비 감소
- **신용경로 == 은행 대출태도 변화**
 - 금리 상승 -> 은행 대출태도 변화(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) -> 기업 투자 및 가계 소비 위축
- **환율경로**
 - **금리 상승** -> 국내 원화표시 자산의 수익률 상승 -> 해외자본 유입(달러 유동성 증가) -> **원화 가치 상승** -> **환율 하락**
 - 원화표시 수입품 가격 하락 (가격경쟁력 하락)
 - 수출(해외수요) 증가
 - ⇒ 총수요(소비·투자·수출) 감소 -> 물가하락 압력 작용
 - **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원화표시 수입물가의 하락이 국내 물가를 직접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**
 - 한국은행의 조치

- 1. 외화를 외환 보유고에 저장
- 2. 기준금리 낮춤 : 원화의 유통량 증가
 - 외인들의 자금 회수 -> 외환보유고의 외화 감소 -> 원화 증가
 - 외환보유고의 외화 바닥 (환율방어 불가), 원화 급증(원화 가치 하락) --> IMF
- **기대경로 == 기대인플레이션 변화**
 - 기준금리 인상(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)
 -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-> 제품가격 및 임금 영향 -> 실제 물가상승률 하락

통화정책 수단

1. 공개시장 운영

- 한국은행이 **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(채권)을 사고 팔아** 시중에 **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**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
- 증권매매 : 국공채 등을 매매하여 자금을 공급하거나 회수 -> 느림
 -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증권을 매입 -> 시중에 유동성(본원통화) 공급
 -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 보유 증권을 매각 -> 시중에 유동성(본원통화) 환수
- 통화안정증권 발행·환매
 - 단순매매(OSP : Outright Sales and Purchases) : 유동성이 영구적으로 공급 또는 환수
--> 시장금리에 직접적인 영향(제한적 매매)
 - 환매조건부매매(RP; Repurchase Agreements) : 일정기간 이후 증권 매매(통상 7일물)

2. 여·수신제도

- 대출(여신), 예금(수신)
- 개별 은행금융기관을 상대로 **대출**을 해주거나 **예금**을 받는 정책수단
- 기준금리를 높이면 시중 은행들은 한국은행에 돈을 맡기게 됨 ->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는 효과

3. 지급준비제도

-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**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일정비율(지급준비율)**에 해당 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**지급준비금으로 예치**하도록 **의무화**하는 제도(**예금자보호법**) -> IMF이후 강화
- **지급준비금** : 예금자에게 지급할 돈을 준비하여 일정부분 한국은행에 맡겨두는 돈
 - 일부는 시제금(한국은행 운영에 필요한 자금)으로 사용
- 지급준비율 **상승** --> **가장 빠르게 시장 유동성**을 움직일 수 있음
 - 은행들은 더 많은 자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치
 - 대출 취급이나 유가증권 매입 여력 축소

- 시중 유동성 축소
- 과도한 대출 증가로 인한 금융불안 방지

2. 금융안정

금융시스템(financial system)

개념

-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과 이들을 형성하고 운영하며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법규와 관행, 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 인프라

종류

- 자금시장(money market)
- 자본시장(capital market)
- 외환시장
- 파생금융상품시장

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

- 단기금융시장 – 콜 시장, 기업어음시장, 양도성 예금 증서 시장
- 장기금융시장 – 장기대부시장, 증권시장 (주식, 채권시장)

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

- 직접금융시장 – 증권시장
- 간접금융시장 – 금융기관

세계경제의 두 축 : IMF(금융)와 WTO(실물)

- 금융
 - 국제통화기금(IMF): 금융구제기구
 - 우리나라 IMF 2년만에 탈출 : 금모으기 운동으로 모아진 자금으로 삼성, 현대, 대우 건설을 축으로 해결
 - 국제결제은행(BIS)
- 국제금융시장은 24시간 체제

지급결제

- 지급결제수단 : 현금(화폐), 어음/수표, 신용카드, 계좌이체 등
- 구성 : 지급수단, 거액결제시스템, 소액결제시스템, 증권결제시스템, 참가/청산/결제 관련 기관

국고제도 - 국고금

-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 수납, 국고금 지급, 회계처리 및 계산증명 업무 담당

3. 외환시장

- 외환보유고
 -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: 4300억달러(550조) --> IMF이후 대비
 - 비교) 대한민국 1년 예산 : 340조
- **외환보유액** : 보유하고 있는 대외 지급준비자산
- 외환보유액 ↑
 - 국가의 지급능력↑, 국가신인도↑, 외국인투자↑, 해외 자본조달 비용↓(이자낮아짐)
 - 선진국의 경우 자국통화가 결제통화로 사용, 외환보유액을 축적할 필요성이 작다
 - 필요시 자국 통화를 새로 찍어내면 그만
 - **자국통화** : 전세계 통용되는 화폐

FBR(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)

- 미국의 중앙은행
 - 국가 소유 은행이 아닌 민간은행
 - 현재 미국 정부는 민간 기업인 연방준비제도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달러를 빌려오는 식으로 화폐를 조달

통화 스와프(Swap)

- 국가 간 **현재의 계약환율**에 따라 **자국 통화를 상대방의 통화와 교환**하고,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**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**하는 거래
 - 외환 부족 시 상대국의 외환을 들여와 외환위기 극복, 환율 안정
 - 정책 조율 등 엄격한 요구조건이 없이 외화 유동성을 확보
- 미국의 통화스와프 협정
 - 원화를 미국에 맡기는 대신 달러를 들여오고(렌탈) 일정 기간 뒤 맞바꾸는 방식

IMF(International Monetary Fund) : 국제통화기금

- 환율과 국제 수지를 감시함으로써 국제 금융 체계를 감독하는 국제 기구
- 외화 부족 국가의 요구액만큼 외화를 공급해 금융 구제

환율

기본 원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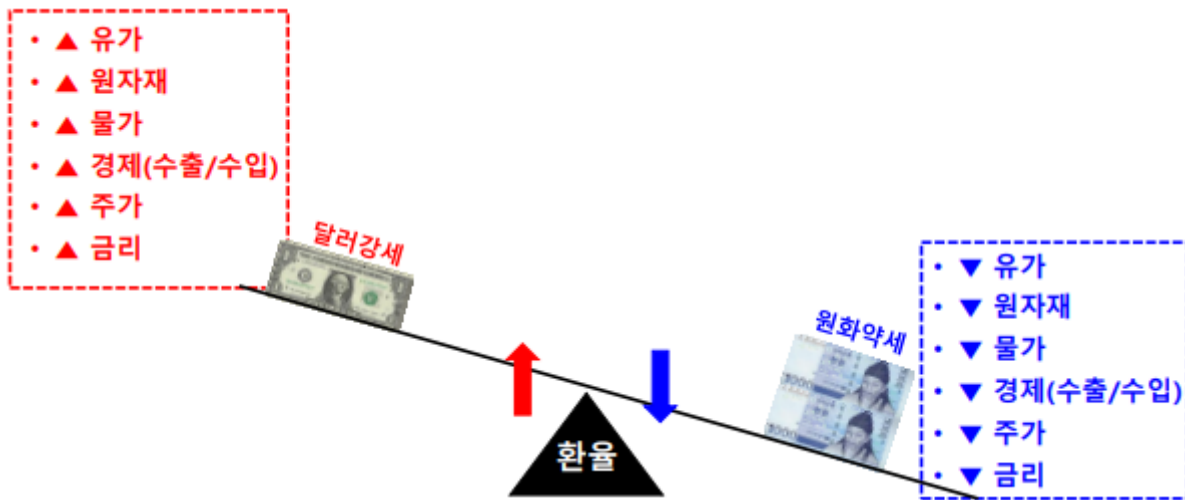
1. 금리 상승 = 원화 가치 하락 = 달러 강세 = 환율 상승

- 수출 강세 : 가격경쟁력이 생김 -> 한국 : 경상수지 무역 흑자
 - ex. (미국 입장) 과거에는 1달러로 1000원짜리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다면, 원화 가치가 하락함으로 2000원짜리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됨
 - 외환 공급량 증가 : 수출 증가 = 수출 통해 받은 외환이 국내로 들어와 외환시장에서 공급 증가
- 수입 감소 : 같은 양의 물건을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와야 함(원화표시 수입품 가격 하락)
 - ex. (한국 입장) 과거에는 1달러짜리 물건을 1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면, 원화 가치가 하락함으로 2000원을 줘야 구매할 수 있게 됨
 - 외환 수요량 감소 : 수입하는 생산량 감소 =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달러 수요 감소
 - 물건 판매시 가격 상승할 경우 --> 소비심리 위축
 - 가격 유지할 경우 --> 더 적은 양 생산

2. 금리 하락 = 원화 가치 상승 = 달러 약세 = 환율 하락

- 수출 약세 : 가격경쟁력 하락
 - ex. (미국 입장) 과거에는 1달러로 2000원짜리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다면, 원화 가치가 하락함으로 1000원짜리 물건 밖에 구매하지 못함
 - 외환 공급량 감소 : 수출 감소 = 외환시장의 외환 감소
- 수입 증가 : 같은 양의 물건을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여 구매 가능
 - ex. (한국 입장) 과거에는 1달러짜리 물건을 2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면, 원화 가치가 상승함으로 1000원만 줘도 구매 가능
 - 외환 수요량 증가 : 수입 증가 =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달러 수요 증가

환율이 미치는 영향



환율 vs 유가

- 국제 유가는 **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격 영향**을 받는다 -> 단순히 환율에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
- 환율과 유가는 **음(반비례)**관계
 - 달러가 강세(환율상승)면 유가는 하락
 - 환율이 오르기전에는 1달러로 1개만 살수있었던 것을 환율이 오르고 난 후 2개 살 수 있게됨
 - 그 결과, 공급이 많아져 유가 하락
 - 달러가 약세(환율하락)면 유가는 상승
- 수입국과 수출국의 입장
 - 수입국 : 음의 관계
 - **달러로 교환** : 환율상승(달러 가치 상승) -> 유가 하락
 - 원화 입장 : 환율상승시 달러를 더 비싸게 교환해야하기 때문에 유가 상승
 - 수출산업 :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 어려움
 - 수출국 : 환율상승 -> 대량의 석유 수출 가능(호재)
- 생산자물가는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-> 원자재 영향

환율 vs 원자재

- 원자재 :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원료가 되는 자재
 - 금, 구리, 석유 및 옥수수, 밀, 쌀 등이 주요 품목
 - 환율에 대한 민감도 : 구리
 - 거래량 추이 : 옥수수
 -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 : 옥수수
 - 2018 미-중 무역전쟁 -> 구리 원자재 가격 폭등

환율 vs 물가

- 환율과 물가는 반비례 관계
- 우리나라의 경우 PPI 와 EPI 중요
- 외국의 경우 PPI , 농업지수 중요

1. 생산자물가지수 (PPI : Producers Price Index) -> 가격변동을 측정

- **생산자물가지수(국내상품가격)**
 -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
- **국내공급물가지수 (국내출하/수입) -> 원재료, 중간재, 최종재로 구분**
 - 물가변동의 파급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**국내에 공급(국내출하 및 수입)되는 상품**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원재료, 중간재, 최종재의 생산단계별로 구분하여 측정한 지수
- **총산출물가지수(국내출하/수출) -> 생산자물가지수 + 수출물가지수 결합**
 - 국내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**국내출하 외에 수출**을 포함하는 총 산출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

2. 소비자물가지수(CPI : Consumer Price Index)

-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, 항상 우상향(정부가 2~3% 내로 조절)
- 가정이 소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와 용역의 평균 가격을 측정한 지수
 - 외부 충격 등에 취약한 품목 제외
- 경기(인플레이션) 판단지표

3. 수출입물가지수(EPI/IPI : Export /Import Price Index) -> 계약통화, 원화, 달러로 표기

- 수출 및 수입 상품의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측정하여 지수화한 통계
- 국내물가에 대한 선행성을 갖도록 통관시점이 아닌 계약시점의 가격을 조사하여 작성

환율 vs 경제(수출/수입)

- 국제수지표 -> 국가의 대외거래 가계부
 - 일정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기록한 표
- 국가 간 무역 및 자본의 유출입 현황을 확언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통계
 - 국가경제에 대외 불균형 여부를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
- 경상수지
 - **상품수지** : 상품의 수출액 - 수입액 (+) 흑자 (-) 적자
 - 서비스 수지 :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수입 - 지출

환율 vs 주가

- 환율과 주가는 반비례(절대적)
 - 환율 상승(원화가치 하락) -> 투자 이유 없음 -> 수요 하락 -> 주가 하락
 - 환율 하락(원화가치 상승) -> 투자 증가 -> 수요 증가 -> 주가 상승

환율 vs 금리

- 환율과 금리는 양(비례)의 관계
 - 금리 상승 -> 시장의 유동성 감소(달러가치 상승) -> 환율 상승
- 한국과 중국의 금리는 썬크로울 99%
- 미국의 금리와 한국의 금리는 비슷하게 형성
- 일본은 2-30년간 마이너스 금리 --> 분석 금지

실물경제와 금융시장

- 실물 : 생산, 소비, 투자
- 금융(3대 금융시장) : 주식시장, 채권시장, 외환시장

경기 지수

- 경기종합지수(CI) : **경기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주요 경제지표들을 선정**한 후 이 지표들의 전월 대비 증감률을 합성하여 작성
- 경기확산지수(DI) : 경기변동이 경제의 **특정부문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전체 경제부문으로 확산, 파급**되는 과정을 경제부 문을 대표하는 각 지표들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
- 경제지표
 - **GDP(국내 총 생산)** :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모든 물질적 부(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도 됨)
 - **GNP(국민 총 생산)** : 세계 어디에서 생산되었든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것은 무조건 합쳐서 계산

GNP vs. GDP



Value of all goods & services made by a country's residents & businesses, regardless of production location

Sound indicator of financial well-being of Americans & U.S.-based multi-national corporations



Measures production inside of a country, no matter who makes it

Sound indicator of health of U.S. economy

통화지표(유동성지표)

- **본원통화** : 한국 은행에서 발행한 화폐
 - 통화량 : 한 나라 경제에서 일정시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폐, 통화의 존재량
 - 지급준비금
 - 시재금 : 지급준비금의 일부를 한국은행이 투자, 대출 등에 사용하는 돈
- **시중의 돈은 많은 수록 좋은가?**
 - 돈이 너무 많으면 -> 물가상승(인플레이션)
 - 돈이 너무 적으면 -> 경기위축(디플레이션)
- **종류**
 - **M1(협의통화)**
 - 현금 및 예금 금액 (당장 사용 가능한 돈)
 - 수시입출식예금, 요구불예금
 - **M2(광의통화)** --> 통화량은 보통 M2를 봄
 - 2년 미만 정기예금 (이자를 포기하면 인출 가능한 돈)
 - 현금 및 예금(M1) + 정기 적금 + 부금 + CD + 채권 + 어음 + 신탁형 증권저축 등
 - 신탁형 증권저축
 - **Lf(금융기관유동성)**
 - M2+2년이상 금융상품
 - 통화를 취급하는 은행, 보험사, 금융 기관 등을 포함
 - **L(광의유동성)**
 - 가장 넓은 범위의 유동성 지표
 - 정부 및 기업이 발행하는 유동성 상품까지 포괄하는 개념

- M3+채권과 어음

- M1->L 로 갈수록 당장 현금화가 어렵다

	현금	결제성예금	2년미만금융상품	만기2년이상 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기타예수금	정부,기업발행 유동성상품
			장기예적금, 실적배당형 수익증권, 임도성예금증서(CD), 머니마켓펀드(MMF), 원대조건부채권(RP), 종합자산관리계좌(CMA)	장기금융상품, 생명보험 계약준비금, 증권금융 예수금등	각종채권,어음등
M1(협의통화)					
M2(광의통화)					
Lf(금융기관유동성)					
L(광의유동성)					

- 평잔/말잔

- 예금의 경우 말잔(말기잔액)
 - 총금액에 이자율 적용
 - 일반적으로 평잔보다 말잔이 이자율이 높음 --> 왜곡 가능성 있음
- 적금의 경우 평잔(평균잔액) --> 보통 평잔 사용
 - 들어온 금액과 일수에 맞게 이자율 적용

알고있기

3대 신용평가원

1. KIS(한국신용평가)
2. SCI
3. NICE(나이스)

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

<https://portal.kfb.or.kr/main/main.php>

통계관련 사이트

1. ecos(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)
2. kosis(통계청)
3. e-나라지표

- 플라자합의 : 일본, 버블경제, 엔고현상
- 국채를 누가 가장 많이 사들였는가?
- 대한민국 국가 부도의 날(영화)
- 차트그릴때 1997(IMF),2007(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),2008(리먼사태)년 주의깊게 보기
- 각 지표 분기 맞추기
 - 분기 데이터 : 1분기를 워킹데일로 맞추기 -> 각 지표 워킹데일로 나누기
 - 일별 데이터 : 월별 평균